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 '갈등' 여전

시 "여론조사로 결정"... 시의회 "공론화위 구성 논의" 맞서

민선 7기 여수시가 중점 추진 중인 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며 합동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시의회는 합동 여론조사에 대해 더는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 여론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시의회의 공론화위원회 제안에 대해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통합 청사는 이미 23년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국은 또 시민 의견을 물어보자고 원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 대로 합동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는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며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 의견을 물어 하루빨리 논쟁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전창권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 찬성 주민대표와 반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어 "별관 증축의 경우 찬반이 갈리는 만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인 타협을 이루

자"고 강조했다.

별관 증축 여부를 묻는 합동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본청사는 지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麗) 통합으로 학동에 있는 구 여천시청사인 학동 1청사에 자리 잡았으나, 여서청사와 국동임시별관 등 8곳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본청 뒤편 주차장에 39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했으나 시의회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지난 4월 여수시와 시의회는 합동 여론조사로 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묻기로 합의했지만, 시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합동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식물 키우며 힐링하고 꿈 키운다

고흥군 초등생 원예체험 호응

고흥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예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원예활동 생활화보급 시범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 10일까지 고흥초등학교와 녹동초등학교, 동강초등학교 등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원예 체험을 하도록 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을 직접 느끼는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밥을 조성에 학생들이 직접 관리 할 수 있게 했다.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체험 활동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원예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정서발달은 물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시, 모든 시민에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 등 대상

순천시가 오는 12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15일 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역에 돌고 돌아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1월 12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2월 중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 290억 원이 투입되며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예산 절감과 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

시는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보조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2000개 업소에 30만원씩 36억원, 24세~30세 청년 2만 4000여 명에게 연 20만원의 청년 사랑 문화복지카드 46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87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해 보다 앞당긴 일상회복 여건을 마련했다.

또 분야별 각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지원 유관기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일상회복이 실물경제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민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위드 코로나 선포 이후, K-POP 페스티벌, 평생학습박람회, 문화재 야행,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와 행사로 약 50만 명이 순천을 방문했다"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다시 생기가 돌고, 거리 곳곳에 활기에 찬 시민들의 모습에 지난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코로나의 종식이 아닌 코로나와 동행하는 의미"라며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김현진 보성문화원장 '전남도지사상' 수상

김현진(사진 왼쪽) 보성문화원장이 제13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보성군 문화원장을 6년째 역임하면서 보성문화지 발간, 향토사료 수집보존 등의 사업을 추진해 보성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보성군은 올해 보성문화원에 보성향토사발간사업, 문화원의날 행사, 고문헌발간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문화원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성문화원이 주관하고 전남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13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은 김영



록 지사와 김한중 도의회 의장, 장석용 도교육감,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송시중 전남문화원연합회장 등 전남 22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지리산 15일까지 일부 통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중)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1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중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박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 126.8km가 산불 예방을 위해 통제된다.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통제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가스공사 광양지사 2024년말 완공

광양시-가스공사 협약... 3400㎡에 83억 투입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가 2024년 광양시 중동 시청 인근 사유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가 순천시로부터 이전 설비를 위해서 지난 14일 시와 가스공사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광양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김경호 부



시장과 임춘호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정부의 제13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공유하고 광양 일대와 CGN 울출발전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가스 공급중단 방지를 위한 환상망 구축안도 논의했다.

우선 광양을 덕례리 무선마을 인근에 천연가스 차단설비인 덕례관리소를 설치하고, 중동에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를 건립하는 안을 담았다.

한국가스공사는 85억원을 들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중동 3400㎡에 상주 40명 직원이 근무하게 될 연면적 1835㎡의 지하 1층, 지상 3

층 건물을 건립한다.

시는 사육이 위치할 사유 토지에 대해 도로부지 용도 폐지 및 토지 분할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2022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업무 협약식에 협조해준 광양시에 대한 보답으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5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광역시에 분사가 있으며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1983년 8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광양=양대수 기자 kds@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남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 모집분야 | 웹디자이너 |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 물 류 |
|------|--|--|--|
| 직무내용 |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
|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09:00~18:00 |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 주6일 (월~토) 04:30~13:00 |
| 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